■ 광주 KBS '정은아의 아이콘서트'

일요일밤, 참~ 포근한 콘서트

문화중심도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괜찮은' 공연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광주에서 조용하게 공연문화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KBS-1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정은아의 아이콘서트'(이하 아이콘서트)가 그 주인공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일 아이콘서트 녹화 현장을 찾았다.

유진 박·이은미·꼬두메 등 장르 넘나든 음악 선사하며 공연문화 '조용하게' 전파

이날 무대를 장식한 사람은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과 '신관웅과 재즈 밴드'. 평소에는 쉽지 않은 두 아티스트의 만남인 만큼 공개홀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무대를 보던 관객들도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일어서 손뼉을 치며 열광했다.

이날 방청에 참여한 김미영(여·28·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광주에 이런 프로가 흔하지 않은데 기대보다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는 꼬박꼬박 시청해야겠다"며 즐거워 했다.

이날 공연은 500석 규모의 공개홀이 가득 찰 정도로 '대박'이었다. 계단에 앉아서 보거나 서서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음악을 통한 시청자와의 만남', 그리고 이를 통한 '대중과 의사소통'을 표방하는 아이 콘서트에는 가수 이은미, 럼블피쉬, 크로스 오버 음악인 신문희 교수를 비롯해 이 지역 요들러 장승일, 신자유, 꼬두메 등 장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인이 방문해 공연을 펼쳤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은아(28) 아나운서는 "처음에는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부담도 됐지만 지금은 시민들에게 멋진 음악을 소개하는데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프로그램이 공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순조로운 출발은 아니었다. 광주라는 지역의 한계, 서울에 비해 넉넉지 않은 제작비 등 열악한 제작여건 속에서도 프로그램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작진의 노력 덕분이었다.

지방이라는 인식 때문에 섭외도 어렵고, 공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은 프로그램을 외면하기 일쑤였지만 대중가수와 로컬의 만남, 클래식과 퓨전의 만남, 팝과 국악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를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 인기 음악인들의 만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인이나 뮤지컬 배우 등 여러 장르의 예술인을 무대로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제작을 맡고 있는 전수영(33)PD는 "기존 틀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인에게는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열린 마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와 전제덕씨가 함께하는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방청권은 따로 배부하지 않지만 녹화 일정은 사정에 따라 수정되는 만큼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지역공연문화를 이끌어 가는 '정은아의 아이콘서트'에 출연해 열정적인 연주를 선보인 유진 박.

록밴드 '나비효과' 광주 소규모 클럽서 공연하는 이유는?

"침체된 지역음악계 부활 날개 펴길…"

'첫사랑' '슛더칙스(Shoot The Chicks)' 등으로 록 마니아의 사랑을 받아온 록밴드 '나비효과'. 나비효과의 김바다(36·보컬), 최기호(31·기타), 이호영(30·드럼)이 11일 오후 광주의 라이브 클럽 '곡스'(Goks)를 찾았다.

록 마니아라면 누구나 알만한 '인기 밴드'가 굳이 적은 규모의 라이브 클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밴드는 "클럽에서 관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희열도 있지만 침체된 지역 음악계 부활을 위한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라고 답했다.

"광주 관객들은 '물'이 좋아요.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즐기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다는 거죠."(최)

"모범답안 같지만 정말 공연 자체가 즐거워요. 지방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여행이나 휴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즐기기 시작하면 관객이 1명이든 2명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극복 못 하면 그만 둬야죠."(김)

지난달에는 공연을 마친 후 광주의 한 바에서 가진 뒤풀이에서 즉석 공연도 선보였다. 예상치 못한 깜짝 공연에 바에 있는 손님과 관객 모두 즐거워 했다는 후문이다.

"어떤 공연보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가게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함께해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앞으로는 그런 깜짝 공연도 자주 해보고 싶어요."(김)

밴드는 지난 1집 이후 방송에는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방송 출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영상, 미술, 조명, 음악 등 볼거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12월까지 전국 클럽투어를 계속하는 나비효과는 내달 8일 클럽 곡스에서 광주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공연을 보러 오기 힘들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보일 3집을 기대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광주를 찾은 '나비효과'. 왼쪽부터 이호영, 김바다, 최기호

10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괴물	32만8천500	912만9천400
2	몬스터 하우스	10만5천500	39만5천600
3	각설탕	8만4천000	33만8천000
4	다세포소녀	7만6천000	38만8천200
5	게드 전기: 어스시의 전설	3만2천	12만2천500
6	스승의 은혜	2만8천100	53만3천100
7	플라이 대디	1만6천300	48만6천700
8	한반도	1만1천	382만3천000
9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8천	461만3천000
10	유실물	1천400	31만3천0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37.3
2	소문난 칠공주	KBS2	34.9
3	열아홉 순정	KBS1	28.0
4	돌아와요 순애씨	SBS	22.2
5	상상 플러스	KBS2	20.6
6	개그콘서트	KBS2	20.0
7	사랑과 야망	SBS	19.6
8	웃음을 찾는 사람들	SBS	19.0
9	순간포착 세상에…	SBS	18.1
10	VJ특공대	KBS2	17.7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강적	액션
2	아파트	호러
3	구타유발자들	코믹스릴러
4	럭키 넘버 슬레븐	스릴러
5	달콤, 살벌한 연인	로맨틱스릴러
6	맨발의 기봉이	드라마
7	아랑	호러
8	왕의 남자	드라마
9	브이 포 벤데타	SF액션
10	태풍	드라마

〈자료제공:씨네타운〉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미친 사랑의 노래	씨야
2	비행기	거북이
3	그래서…	타이푼
4	사랑 안 해	백지영
5	남자를 몰라	버즈
6	사랑한다는 말	김종국
7	홀드 더 라인	조PD, 브라운아이드걸스
8	연예인	싸이
9	러브 올	H7미인
10	떠나지 마	이승철

〈자료제공:벅스뮤직〉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